

도서관을 독서실로 인식하는 진짜 이유?

글_이우정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관장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한 나라의 현재를 알려면 시장에 가고, 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다. 도서관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다니! 위정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짓고 국민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삶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도서관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스스로 도서관을 떠올리는 사람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도서관에 가는 사람도 알고 보면 도서관의 일반열람실(독서실)의 좌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도서관을 독서실로 인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아무래도 입시제도와 각종 시험제도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기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문제는 너무나 본질적이고 복잡하여 감히 거론하기가 두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은 과연 훌륭한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인지를 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도서관의 ‘좌석’ 때문이 아니라 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도움을 받아 행복하거나 성공을 한 경험이 별로 없다는 말일 것이다. 만약에 국민 대다수가 도서관을 통해 얻을 것이 기껏해야 좌석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실제로 얻을 수 있다면(그것도 무료!) 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지 않을까?

월요일엔 지역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장을 나와서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취업자를 위해 이력서 쓰는 법도 가르쳐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영상 강좌도 무료로 제공해 준다. 화요일엔 자녀 교육 특강과 독서교육 특강을 유명 대학교수가 와서 역시 무료로 해준다. 저녁에는 퇴근 후 직장인을 위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낮에 예약한 신간도서를 밤 10시까지 빌릴 수 있도록 사서가 친절히 안내해 준다. 수요일엔 인터넷으로 전자책을 읽고, 관련되는 DVD를 도서관

내 멀티코너에서 편한 자세로 볼 수 있다. 특히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나 자영업자들은 도서관을 사무실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언제든지 개인서고처럼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목요일엔 도서관에서 마련한 인문학 강좌를 듣고 평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자신과 세계에 대한 고민을 해보기도 한다. 사실 인문학 강좌야말로 가장 훌륭한 독서 프로그램이 아니겠는가? 도서관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설학원 같은 곳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최고의 학교라는 말이다. 또한 개인이 구입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료나 콘텐츠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도서관이 아니면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자, 금요일엔 주민들을 위해 음악회를 연다. 세종문화회관 같은 시설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내용은 수준급이어서 참석했던 모든 주민들은 오랜만에 감동을 만끽하게 된다. 주말에는 영화관이 없는 곳에서는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여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4인가족의 경우 대출회원카드(1인 3권씩 대출)를 모두 가져와서 읽고 싶은 책(12권씩)을 빌려가서 가끔 토론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무려 12권의 책을 공짜로 빌려가다니! 이쯤 되면 세금내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관’이 도서관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솔직히 말해 도서관을 독서실로 인식하는 이유는 국민들 탓이 아니라 좋은 도서관 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좋은 도서관에 대한 경험이 흔치 않은 탓이 더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도서관을 포기하지는 마시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좌석 따위에 목숨 걸지 말고 ‘한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협력할 때이다! **이우정**